자식들에게 제일 가까운것은 어머니이며 자식을 제일 사랑하는것도 어머니이다.

나는 공화국에 올적마다 아이들에 대한 공화국의 특별한 사랑과 배려에 무한히 감동되여 저도 모르게 어머니! 하고 조용히 외워보군 한다.

푸르른 하늘가에 아이들의 노래소리 더욱 랑랑히 울려퍼지는 6월 6일, 소년단원들의 명절을 맞으며 귀여운 천사들의 그 노래소리, 웃음소리에 축복의 붓을 적셔 위대한 어머니 사랑의 세계를 말해보고저 한다.

1

아이들의 모습은 당대 사회의 명암이 극명하게 비낀 거울이라고 할수 있다.

천진한 아이들의 얼굴표정은 꾸며낼수 없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차례지는 기쁨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감수하며 려과없이 드러낸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최고의 진실한 인간은 아이들이라고 했다.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그 사회의 진실을 투시해볼수 있을것이다.

예로부터 농작물은 한해를 위해 심고 나무는 십년후를 보고 가꾸며 사람은 백년대계를 위해 키운다고 했다. 지금 북은 백년미래의 대화원에 더욱 개화만발할 천년미래의 설계도를 펼치고 신심높이 전진하고있다. 최근 북에 건설된 아이들과 관련된 수많은 고급스러운 시설물들이 그

것을 증명해주고있다.

평양 문수지구에 건설된 세계적인 문수물놀이장과 옥류아동병원, 현대적으로 건설된 평양육아원, 애육원, 새로 개건보수된 으리으리한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가는 곳마다에서 보게 되는 로라스케트장과 유원지들, 전자오락관과 아동백화점, 경치좋은 곳에 높이 솟은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와 야영생들을 위한 전용렬차와 역사…

복지에 대한 투자를 넘어 미래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높이에서 최고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이다.

사치함과 화려함에 혀를 두르게 되는 옥류아동병원만 봐도 그렇다.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만화그림 몇천점이 각종 모형들과 조화를 이루며 기기묘묘하게 붙어있는데다가 현대적인 치료설비들과 입원실들이

그쯘하게 갖춰져 옛말속의 바다룡궁을 방불케 한다. 여기서 아이들이 무상으로 치료를 받는다. 돈없이 치료받는다는 소리는 미국이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별나라이야기만큼이나 신비하겠지만 그 신비함이 그대로 현실로 펼쳐지는 북은 말그대로 별세상이 맞다.

이 별세상에는 치료를 받으면서 배우는 특별한 체계가 마련되여있다. 병원에 아이들의 학습을 위한 학습실이 있고 그를 위해 선생이 배치되여있는것이다. 입원하여 건강회복기간에 아이들은 여기서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맞춰 공부를 하게 된다. 아이들에게 국가가 얼마나 진지하고 구체적이며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는지 돌이켜보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병원에서 이런 교육체계까지 운영한다는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수없다. 병원과 학교라는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치

료공간에 융합시킨 국가의 발상은 참으로 탄복할 지경이다. 공화국이 아니면 그 어느 나라에서도 도저히 생각할수도, 실현시킬수도 없다.

얼마전 병원학습실에 들렸을 때 녀선생이 들려준 이야기는 지금도 나의 귀전을 떠나지 않는다.

지난해초 평양미술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한 한 학생이 급성충수염으로 여기에 입원하였다고 한다. 그 학생은 물론 부모들도 당황하여 어쩔줄을 몰라했다. 품들여 준비한 대학입학시험에 빠지게 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괜한 걱정이였다. 미술대학 시험관들이 병원에 와서 소묘실기를 직접 받았던것이다.

한 학생을 위하여 대학입학시험장이 병원으로 옮겨진 이 꿈같은 현실, 그때 그 학생의 어머니는 너무도 고마워서 시험장밖에서 울고있었다. 그리고 말했다고 한다. 설사 아들이 대학

에 입학 못한다고 해도 이와 같은 배려를 받은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일생 잊지 않겠다고말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눈시울을 적셨다. 내 또한 이것을 잊지 못할것 같다.

현재 그 학생은 미술대학 전문부 1학년에서 공부하고있다.

이런 이야기는 옥류아동병원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최근 새롭게 개건보수되여 그 면모를 일신한 수백개의 대리석기둥들이 하늘을 떠받들고 서있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가면 천하의 신동들이 다 모여 재주를 뽐내고있다. 국가가 돈 한푼 받지 않고 무용, 가야금, 그림, 문학, 수예, 롱구, 태권도를 비롯한 수십여개의 소조에서 지덕체를 겸비한 유능한 인재들을 키우고있는것이다.

북에는 중앙뿐만아니라 각 도, 시, 구역마다 이런 기능을 가진 소년궁전과 소년회관들이 많다고 한다.

공화국에서만 볼수 있는 이러한 과외교양기지엔 소년단야영소도 포함된다. 북 소년단야영소의 최고의 백미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이다.

북방문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가볼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있는 행운이 차례졌다. 가보니 듣던것보다 더 황홀했고 생각했던것보다 더 웅장했으며 소개된것보다 더 많은것이 아직 알려지지 않고있었다.

지난해 제29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에 참가한 여러 나라 야영단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쓴 감상글들이 잊혀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런 야영소는 세상에 하나뿐이라는것이다.

재카나다교포 리동욱선생이 쓴 글은 특히 인상적이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는 부지의 규모도 세계적이고 명소로서의 위치도 세계적이며 그 운영과 질적내용도 세계적이다. 세상에 없으면서도 조선에는 있고 조선에는 있으면서도 세상이 아직 다 모르는 아이들의 궁전, 아이들의 천국을 누가 펼쳤는가.》

나는 단언하고싶다. 어머니사랑이 펼쳤다고



수족관에서 신비의 바다세계를 체험하는 야영생들



전자오락실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야영생들

말이다.

자식들의 기쁨에서 무한한 행복을 찾고 자식들이 괴로워하면 가슴아파 잠 못 드는 어머니, 설사 죽음앞에 다가선다 하여도 자식을 위해서는 사소한 주저나 동요도 없이 서슴없이 몸을 내대고 어떤 환경속에서도 손익계산은 더욱 모르는 그렇듯 뜨겁고 열렬한 모성애를 사회제도에 정책으로 승화시켜 아이들을 나라의 왕의 지위에까지 올려놓은 북의 정치가 물질만능의 세계를 눌러딛고 아동만세의 세상을 그려낸 것이다.

지난해 4월 남조선에서는 수학려행을 떠났던 수백명의 아이들이 돈벌이에 눈이 먼 해운사의 비인간적인 행위로 바다속에 수장되는 대참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들을 구조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은 상식을 뒤엎는 경악 그자체였다. 아이들

이 살려달라고 손톱이 없어지도록 창문을 허비며 애걸하여도 살려주는자가 없었다. 《세월》호대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별법》제정을 놓고 벌린 백수십일동안의 유가족측과 청와대, 여야당의 싸움 또한 현대사의 비극중의 비극으로 기록되여있다.

꽃망울을 터치기도 전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자식들을 가슴에 묻고 통곡하다가 눈물마저 말라버린 유가족들을 팽목항에서 취재한 남조선의 어느 한 기자는 기사에 이렇게 썼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릴수만 있다면 바다물을 다 마셔버릴수 있다고 말하는 어머니에게서 망망대해보다 넓고 큰 사랑의 바다를 목격한다. 그런 심성을 가진 이 땅의 어머니들이 바람부는 팽목항부두에 서서 울음섞인 목소리로 다시 묻는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저 차디찬 바다속에 밀어넣었는가. 우리 아이들을 살

려내라! …》

하지만 그 어머니들의 피타는 부르짖음은 남쪽땅에 공허한 메아리로 흩어져버렸다. 권력을 쥔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같은것은 안중에 없고 오직 권력유지와 《정권》쟁탈에만 눈이 어두워 돌아치고있는것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끝난 세상은 이미 인간의것이 아니다.

후대와 미래를 다 내버리고, 의리와 사랑, 도덕과 같은 정신적가치들도 다 내버리고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해, 돈만을 위해 뛥박질하는 사회, 돈이 없으면 학교문앞에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학비마련을 위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세방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새파란 젊음을 내던지는 사회, 극심한 아동학대현상이 만연되여 돈을 위해서라면 어른들이 아이들을 랍치하고 살해하는가 하면 어머니가 피덩어리자식

을 쓰레기처럼 내버리는 비인간적인 만행들이 눈섭 하나 까딱함이 없이 자행되고있는 사회가 바로 남조선사회이다.

우의 사실들을 목격하면서 같은 민족안에 같은 년대에 태여나 사는 아이들이지만 그 처지와 명암이 왜 이렇듯 천지차이로 갈라지는지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수지와 타산을 앞세우지 않고 그것을 쓰고살 사람들의 편익을 제일차적요구로 내세우고 모든 부문에 완벽하게, 일관하게 구현해가는 공화국의 애민정치, 머나먼 미래까지 품어안는 웅대한 후대사랑의 세계가 그 천지차이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창건 첫날부터 오늘까지 인간중시, 인간사랑의 주체사상을 기치로 들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쳐온 공화국이기에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련합세력과 근 70년에 걸쳐 대결전을 벌리는 악조건

에서도 이렇듯 문명과 지성의 상징인 후대교육교양체계를 고도로 완비할수 있은것이다.

개인주의와 물질만능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가 꿈꿀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만이 가진 이 특출한 우월성을 누가 부인할수 있겠는가.

대북혐오증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 엄연한 현실앞에서 자기들의 비렬함을 인정해야 하며 후대들을 위해 정말로 꼭 필요한것을 해줄줄 모르고 또 한것이 없는 자본주의사회는 마땅히 얼굴을 붉혀야 한다.

자본주의사회는 황금은 있어도 래일이 없는 시들어가는 사회이고 공화국은 서방식번쩍거림은 없어도 아름다운 미래가 약동하는 청춘의 나라이다.

2

사람들은 흔히 세상에서 아기를 안은 어머니처럼 신성한것은 없다고 말한다.

그것은 인간생명의 탄생에 대한 례찬인 동시에 보다는 인간에게 행해지는 가장 뜨거운 사랑의 모체인 어머니를 인간사회의 《신》으로 보기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화국은 《신》의 나라, 아이들의 어머니품이다.

여기에 해방된 조국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어린이들에게 **김일성**주석께서 친히 쓰시여 보내주신 시가 있다.

새벽하늘 샛별같이 빛나는
새 나라 조선의 800만 어린이여!

새해와 마찬가지로 새 복을 받아
굳세고 씩씩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무궁한 새 조선의 새 일군 되소서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답고 희망에 넘친 시인가. 이 시를 아기를 안은 신성한 어머니를 그려넣은 화폭에 새겨넣으면 얼마나 멋질것인가. 아마 금상첨화가 될듯싶다. 애지중지 품에 안아 키우는 자식에게 어머니만이 보낼수 있는 사랑의 축복인것이다.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지니고있는 사랑가운데서도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인류에게 바쳐지는 송가가운데서도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송가라고 하시면서 한평생을 바치시여 세상에 부럼없는 아이들의 천국을 일떠세우시고 인민대합창의 송가가 울려퍼지게 하신 **김일성**주석님이시였다.

그래서 공화국에서 아이들은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노래를 오늘도 목청껏 부르고있는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구호 또한 새길수록 깊은 의미를 주고 있다.

카나다에 사는 나의 친구는 이 구호에 처음 접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구호는 서방사회와 북사회주의의 성격을 론하는 대척점에 있다. 서방사람들은 오늘을 위해 살며 동시에 오늘을 즐길줄 모르는 사람에게 래일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은 래일을 위해 오늘을 바친다. 생의 본질을 사는 동안 누리는것이라고 보는것과 후대를 위한 희생을 덕목으로 보는 인생관중에 어느것이 더 아름답고 신성한가?》

삶을 위한 그 모든 행위의 시작과 끝이 돈과 자기 대의 향락에 귀착된다면 그런 사회는 앞날이 없는 사회이다. 그래서 공화국에서 후대를 위해 바치는 사랑과 희생은 그처럼 숭고하고 값비싼것이다.

하기에 미래에 대한 가장 숭고한 사랑에 바탕한 구호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위대한 성인의 한없이 성스러운 정신적유산이며 인류에게 래일이 있음을 확신시켜준 금언이라 할수 있다.

오늘 공화국에 가면 그 확신이 걸음걸음 피부로 와닿고있다. 아들딸들을 위한 공화국의 어머니사랑이 마르지 않는 강처럼 세대를 이어 계속 줄기차게 흐르고있는것이다.

김정은제1위원장의 후대사랑의 정치는 지금 또 얼마나 만사람을 격동시키고있는가.

2만여명의 소년단대표들을 기차와 배, 비행기로

평양에 불러 조선소년단 제6차대회라는 아이들의 대잔치를 펼쳐주시고 그들을 품에 안고 사진도 찍어주시였으며 공연관람도 하시며 그분께서는 온 하루 아이들과 함께 보내시였다. 그때 그분께서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한시도 정겨운 시선을 떼지 못하시였다.



6.6절 조선소년단창립 경축행사에 참가할 소년단대표들

지구촌에 수백의 나라가 있지만 령도자와 어린이들사이에 이토록 친부모, 친자식과 같은 혈연적인 뉴대가 이어진적이 있었는가.

최고사령관으로서 서해의 열점지역인 무도에 작은 목선을 타고 가시여서는 6달잡이 어린이를 품에 꼭 안으시고 그 어린이때문에 섬에 오신듯 친정집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얼마전에는 신혼비행사부부의 청을 들어주시여 갓 태여난 아이의 이름을 손수 지으시고 큰 대회장 주석단에서 만장의 의견도 물으시고는 그들부부를 몸가까이 부르시여 축하도 해주시였다.

참으로 가슴이 흠뻑 젖어드는 화폭이다.

그분이 베푸시는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은 그 하나하나가 감동을 넘어 크나큰 충격이고 순결함과 신선함 그자체이다. 자식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어머니들조차 꿈만 같아 눈시울적시며 못 잊어 전해가는 그분의 후대사랑의 일화들을 어찌 억만송이 꽃이나 하늘의 별들에 다

비길수 있겠는가.

지난해 한세울목사는 **김정은**제1위원장의 현지지도문헌을 수록한 북의 기록영화들을 보며 이런 말을 했다.

《**김정은**제1위원장은 아이들을 너무도 고와하신다. 신자들도 울고갈 위대한 성인의 사랑은 자식들옆에 낳아키운 어머니가 있고 그 어머니들뒤에 그들의 모든 사랑을 합친것보다 더 큰 사랑을 주는 거룩하고 위대한 어머니가 있음을 새삼 깨닫게 한다.》

카나다의 전국위원회 교육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자고로 아이들을 고와하는 사람은 마음이 선량하고 정의로우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정치를 펴는 나라는 아름답지 않을수 없다. 북은 우리가 알고있는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나라이며 신비의 정점에 빛나는 하늘나라이다.》

민심의 현장들에서 전해지는 이러한 생각과 견해는 누구나를 뜨겁게 공감시킨다.

조국의 밝고 착한 아들딸들이 한점의 구김살도 없는 환한 모습으로 세상에 부럼없이 씩씩하게 자라나는 아름다운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김정은**제1위원장께서는 오늘도 하늘땅을 감동시키는 위대한 어머니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초강도행군길을 이어가신다.

올해 설날 **김정은**제1위원장께서는 지난해 10월 완공된 평양애육원, 육아원을 돌아보면서 설날에 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싶어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왔다고 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의 앞날을 축복해주시였다.

원아들과 한 약속을 지키시는것으로부터 시작된 **김정은**제1위원장의 새해 첫 현지지도!

그분의 새해의 첫걸음은 아이들과 인민들과



평양애육원

한 약속을 지키시는것으로 시작되여 1년 365일을 그렇게 이어가고계시는것이다.

평양애육원과 육아원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건설현장에 나오시여 시공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주시고 완공단계에 이른 그날에는 아이들의 동심에 맞는 명화들을 그려넣도록 하시고 원아들에게는 뭐니뭐니해도 어머니사랑이 기본이라시며 취할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취해주신 그분이시였다.

아이들이 기뻐하는것을 보니 힘들게 일해도 보람있는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이 생긴다고,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말씀하시며 그분께서는 그날 원아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며 눈굽을 적시시였다. 원아들을 따뜻이 품어주시며 우리가 혁명하는 이 땅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상에 부럼없어라》노래소리는 더 높이 울릴것이라고 하시는 그분의 확신에 넘치신 말씀은



놀이실에서 즐겁게 뛰노는 원아들



지능놀이를 하는 원아들

우리 마음속에도 뜨겁게 흘러들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실듯, 그들의 밝은 웃음이 행복의 전부이신듯 온갖 로고 다 바쳐가시는 **김정은**제1위원장의 뜨거운 후대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기원하는것일가 생각해본다. 며칠전에도 준공식을 앞둔 원산육아원, 애육원을 찾으시여 볼수록 황홀한 이런 멋쟁이

궁전은 세상에 다시 없을것이라며 그토록 만족해하시였다고 한다.

원아들이 당과 조국을 아버지, 어머니로 따르며 밝고 명랑하게 커서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이 될것이라고,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의 하루하루를 후대들을 위해 더 많은 땀을 흘리고 그 무엇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은 정녕 사람들의 가슴을 후덥게 한다.



원산육아원, 애육원



자동차놀이에 여념이 없는 원아들



물놀이를 하는 원아들

그렇다. 후대들을 위하여 바치는 위대한 어머니사랑은 오로지 그들이 무럭무럭 자라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그 소원에서 비롯된다.

조선소년단창립 66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에서 하신 그분의 축하연설 《앞날의 강성조선을 떠받드는 기둥이 되라》의 자자구구를 다시금 새겨본다. 그분은 연설에서 6.6절은 조선소년단의 명절인 동시에 당과 전체 인민의 소중한 명절이라고 하시면서 공화국의 끝없는 후대사랑은 학생소년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유능한 인재, 기둥감으로 철저히 준비시키는데 있다고 밝히시였다. 학생소년들을 공부도 잘하고 사회도덕도 잘 지키며 체육도 잘하고 애국의 한마음으로 좋은 일도 많이 찾아하는 모범소년단원, 참된 인간들로 키우시려는것이 **김정은**제1위원장의 후대사랑의 목적이다.

최근 유럽의 어느 한 사회학자는 《내 은행잔고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세상은 망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서방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무관심과 무력감에서 벗어나 일상을 제대로 돌보는것과 함께 정신도덕적가치관에 대한 어릴적부터의 교양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나무는 어릴 때부터 곧게 키워야 커서 기둥감으로 쓸수 있는 재목이 된다.

그런 의미로 새겨보면 **김정은**제1위원장의 축하연설은 그야말로 참다운 인간완성을 위한 심오한 사랑의 설계도이고 누구나 학습해야 할 필독교과서이다. 우리 민족만대의 미래를 만리창공에 열어주고 통일강성조국의 앞날에 영원히 지지 않는 아름다운 화원을 펼쳐준 그분의 사랑의 정치는 오늘 감사의 노래가 되여 온 세상에 울려퍼지고있다.

나는 확언한다.

외진 섬에도 단 한명의 학생을 위해 분교가 서고 선생이 찾아가고 교육기자재와 선물을 실은 비행기가 날아가는 나라,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며 학생소년들을 강성조선의 억센 기둥감으로 키우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그런 위대한 어버이를 모신 나라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공화국의 래일은 벌써 오늘이 다 말해주고 있다.

오늘의 학생소년들이 주인이 될 앞날의 공화국은 집집마다에 행복의 웃음이 넘쳐나고 모두가 화목하며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될것이라는것은 너무도 명백하다.

그렇다. 평생 아들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사는 어머니, 어머니가 만드는 세상은 분명

좋은 세상이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든 세상은 기필코 승리하기마련이다.

미래가 웃는 밝은 세상, 노래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위대하고 성스러운 어머니의 품, 공화국이 현실로 펼치고있다.

공화국은 아이들의 천국,
어머니품이다

집 필 재미교포 신 강 국
장 정 김 윤 일
교 정 리 명 찬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4(2015)년 6월 15일
발 행 주체104(2015)년 6월 18일

ㄱ-1214ㄷ